

31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리고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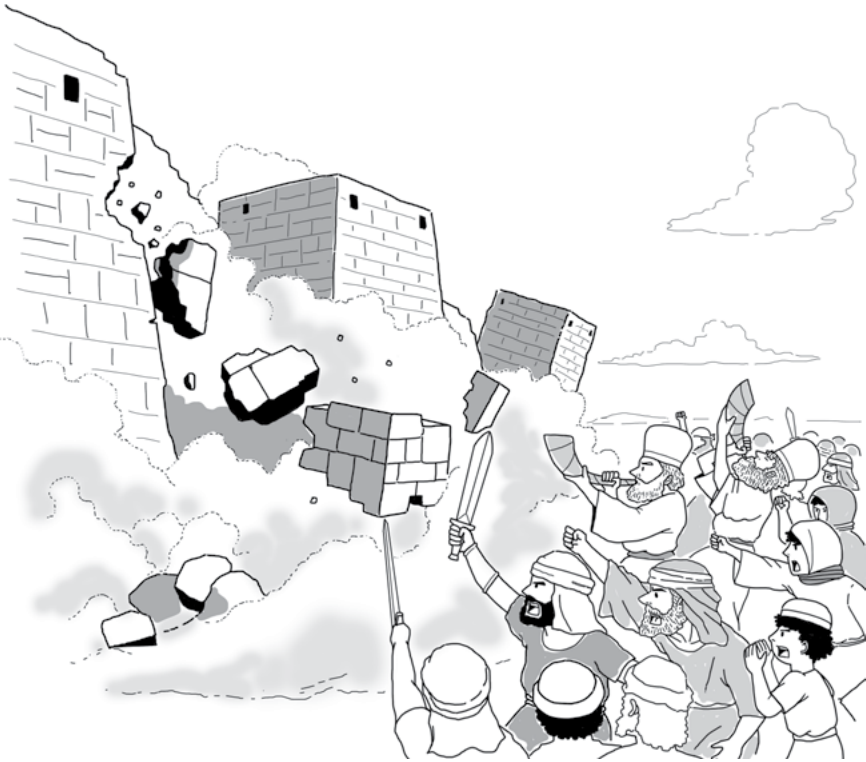
수 5:13~6:21

찬양 135장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찬양 179장 (말씀하시면)

오늘 배울



1.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해짐을 압니다.
2. 믿음의 대상은 현상이나 지식, 경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칠일에는 성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수 6:3~5)



을 이해하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흥해처럼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 주셔서 그의 인도에 복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너머 첫 번째로 만난 여리고 성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7일째에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난 후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나안에서의 중요한 첫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 11:30)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down after they were encircled for seven days.
(He 11:3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성경	내용
수 6:12~14	언약궤를 앞세우고 옛새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돈다.
수 6:15	
수 6:16	
수 6:20	

2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자료들을 찾아봅시다.

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신 13:16, 왕상 16:34, 마 5:18)?

4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던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 때의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함께 교제해 봅시다(사 55:8~9, 고전 1:25).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깨달은 점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18:1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시 37: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39: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시 97:9

↓

렘 32:27

↓

눅 1:37

↓

행 19:20



정면 돌파

서인도 제도의 한 항구에 다섯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척은 영국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닥쳐왔고 파도는 미친듯이 항구 쪽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영국배의 선원들은 닻을 올리고 산더미같이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그 배는 항구를 빠져나가 폭풍우의 정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들 후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긴 했지만 그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항구를 살펴보던 그 배의 선원들은 폭풍우가 두려워 뜻을 거둬들이지 못했던 다른 네 척의 배가 폭풍에 떠밀려 깨어져서 해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면으로 그것에 대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사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질문 있어요~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집사(執事)란, ‘잡을 집’, ‘일 사’로 일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로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형제자매님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교회에서 특별히 세우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형제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자매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주방에 관련된 일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을 돌아보는 일은 자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매 집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이기 때문에, 믿음과 생활이 안정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자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롬 16:1)

이 말씀에서 자매 뵤뵤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됩니다. 이 때 쓰인 ‘일꾼’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즉 ‘여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번역에는 일꾼이라고 하지 않고 집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뵤뵤 자매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봉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